

포장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한해로

새해를 맞아 포장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乙酉年은 포장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다 마무리 되지 않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개발문제는 TV 매체와 일간지에 이 문제가 오르내리면서 포장분야 전체가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문제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과장된 부분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시스템에 대해 다시 바라보고 고쳐나가야 할 점들을 살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포장의 사회적 위상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포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 포장인들에게 국내 포장산업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회의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사건의 마무리로써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포장산업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로 지적되었던 포장산업의 지원체제에 대한 시스템은 각계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개선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포장분야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김 청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무엇보다 새해에는 포장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들 중에서도 포장산업의 위상정립이라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사건에서 드러났듯 사건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부분 중에는 포장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무지할뿐더러 배타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포장업계 내부에서만 포장의 중요성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공염불에 불과할 뿐으로 대외적인 홍보활동들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흐름을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포장이 해주어야 할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포장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일은 어느 특정인들만의, 어느 특정 단체만의 일이 아닌 국내 포장산업 전체가, 포장인 모두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또한 포장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도 포장산업계에서 공동으로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장산업계의 각 분야별 단체들의 통합적인 기구가 먼저 결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됩니다.

새해의 시작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불안정과 불황 속에서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 포장산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포장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일을 위해 포장인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丙戌年 새해에 포장업계의 발전과 개인적으로도 하고자 하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ㄹ